

홍남기 “실수요자 대출방안 등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마련”

4개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 장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가계부채 관리 6대 증가율 목표
코로나 4차 확산 속 견조한 회복
백신접종 등에 현 기조 유지될 것

정부가 10월 중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 능력 내 대출을 유도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방향도 모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고승범(왼쪽부터)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응방향은 이날 추가적 점검 및 논의를 거쳐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 기관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다.

그는 “코로나19 4차 확산의 한 가운데에서 한은, 금융당국 등 4개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의 장이 함께 모여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공유는 물론 향후 정책방향, 특히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대해 협의하는 귀한

자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대응 방향 이외에도 ▲최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회복흐름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백신접종을 제고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그 연장 선상에서 거시·재정·금융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방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오는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 정상화 가능성과 방향 등에 대한 모색도 강조했다.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점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 시에는 우리의 대외부문이 큰 흔들림 없이 유지·관리되면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글로벌 공급병목 해소의 지연 가능성은 물론 최근 미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 경계감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등 앞으로 이러한 대외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라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협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도 불균등(uneven) 회복에 따른 격차확대,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 기초체력 약화, 부동산·가계부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문제가 경제회복과정을 불안정(unstable)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ildus0248@metroseoul.co.kr

3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통계청, 8월 산업활동 동향

광공업 생산 전월비 0.7% 줄어
소매판매 0.8%, 설비투자 5.1% ↓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산업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한 건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10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고, 국민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급 등으로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달 방역과 민생이 조화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 동월 대비 0.2% 줄며 7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가정용 기기 등 전기장비(-5.1%), 금속가공(-5.0%) 등이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가 3.5% 증가하며 선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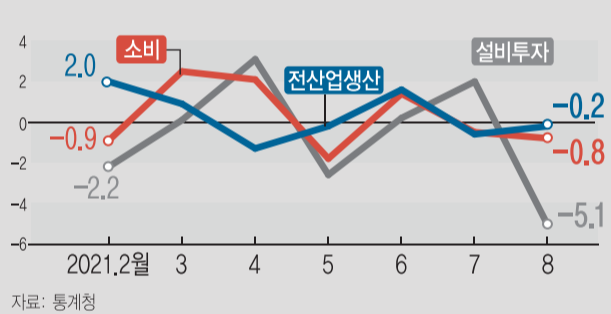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 부진으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주로, 숙박·음식점업(-5.0%), 도소매업(-0.9%) 등이 영향을 받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 본격화로 7월부터 대면 서비스업이 둔화한 데다 6~7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더 커진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산업생산·소비·투자 추이

전월비, 단위:% 100=2015년



자료: 통계청

8월 생산 주요품목 증감

전월대비

반도체 3.5%

전기장비 -5.1%

금융보험 1.0%

숙박·음식점 -5.0%

/뉴시스그래픽

승용차 판매 등이 줄며 내구재(-0.1%), 음식료품 등 판매 감소로 비내구재(-2.0%)가 각각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1.8%)는 소폭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1% 줄며 지난해 5월(-5.7%)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4.3%), 선박 등 운송장비(-7.7%) 투자가 줄어

든 영향이 컸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지만, 올 4분기부터는 다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10월부터 방역과 경제가 조화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기업들 체감경기, 여전히 ‘부정적’ 우세

한은,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코로나 확산세, 유가 등 상승 탓”

기업 체감경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이 지속되면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9월 전산업의 업황 BSI는 84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4월 이후 전산업 BSI는 88을 유지했지만, 7월에 들어서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밑돌면 부정적이라고 보는 곳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지속, 유가 및

물류비 상승,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90으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라 고무·플라스틱(-11p)이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률 둔화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 전자·영상·통신장비(-10p), 자동차(-8p) 등도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전월보다 5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도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수출기업도 8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업황 BSI도 전월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공장 가동률 둔화 등에 따른 발전량 감소, 유가 상승과 원가 상승에 따라 각각 전기·가스·증기(-21p), 건설업(-5p) 등이 떨어졌다. /백지연 기자